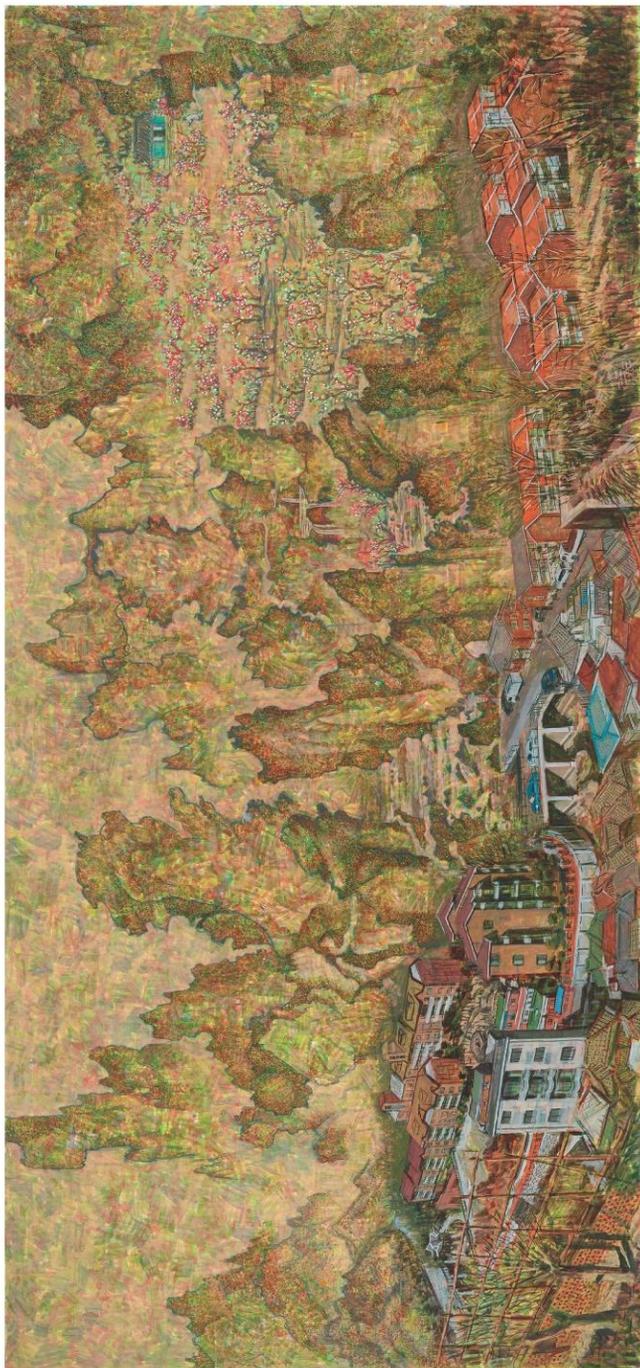


기차 안 갤러리



민정기 '뉴 팡유도원'

조선 초기의 화가 안견이 그린 '동유도원도'와 오늘날 서울 종로구 부인동의 심재 풍경을 빗댄 유화다. 작가는 수차례 답사와 고증을 거쳐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지리, 기상과 현실이 수수제거처럼 혼재된 익숙하고도 낯선 풍경을 캔버스에 구현했다.

* 서울 국제갤러리 <Min Jung-Ki>전, 3월 3일까지 | 문의 02-735-8449